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5 15:04 수정 2021.10.15 15:19 댓글 0



상월결사 삼보순례, 16일차 순례 성료

부곡 출발, 밀양까지 29km 순례
사명대사 정신 남은 충절비 참배
뜻밖의 인연에 108염주 등 선물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인 10월 15일, 순례단이 사명대사의 향훈이 서려 있는 밀양에 이르렀다. 밀양은 사명대사가 태어난 무안면과 충절비를 비롯해 사명대사 표충사당이 있는 표충사 등이 있는 호국성지다.

부곡에서 체력을 회복한 순례단은 새벽 3시 40분부터 순례를 시작했다. 부곡을 나와 고개를 넘어 도착한 곳은 무안면, 무안면에는 밀양의 3대 신비로 불리는 사명대사의 충절비가 있는 곳으로 이 충절비가 안치된 표충비각과 충절비를 수호하는 홍제사가 위치해있다. 순례단은 홍제사 설법보전과 표충비각을 참배했다.

최신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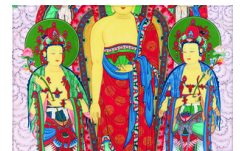
10.27법난 41주년...군학발 짓밟힌 스님
법석 봉행



유네스코 네트워크 뮤직페스티벌 폐막공



조계사 불화모임 화엄회 회원전 개최



박은아 강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사회
실천가대상



과천시약사회, 지역 내 독거 어르신 도시
원



인기뉴스

- 1 절터 복원·명상...‘메타버스’ 빠진 불교
- 2 교학·후학양성 매진한 대강백 종광 스님
- 3 조계종 최고 품계 대종사명사 품서식 봉
- 4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 5 홍법사, 아미타대불 개금불사 회향



순례단이 16일차 순례에 앞서 새벽예불을 하고 있다.



[영상]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새벽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난때 마다 맘을 흘린다는 사명대사 충절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알기라도 하는 듯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충절비에 담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순례단은 새기고, 다시 한번 국난극복을 염원했다.





순례단은 무안면을 나와 밀양시로 향했다.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남은 거리는 80여km. 순례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휴식지마다 순례단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마음속에는 연화장세계가 펼쳐진 듯했다.





순례 중에는 뜻밖의 인연도 함께 했다. 밀양기업인 '화영'의 회장 부부가 직원들과 순례단 응원을 나왔다. 높은 고갯길을 넘은 순례단의 앞에 우렁찬 박수는 큰 힘이 됐다. 불자인 이 부부는 표충사 신도로 진각 스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마중나왔다.

이홍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어려운 길에 힘이라도 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직원들과 함께 순례단을 환대해준 화영 기업 회장 부부에게 순례단 108염주를 선물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이들 부부에게 순례단 108염주를 선물하고 “직원들에게 꼭 고맙다고 말을 전해달라”며 덕담했다. 부인 성정녀 씨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이라며 이미 멀리 지나간 순례단을 다시 찾아 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삼보사찰을 찾아가는 천리순례가 대장정 종반부에 이르자 더욱 많은 일일참가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순례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금곡 스님, 기획실장 삼혜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등 부실장 스님 및 국장 스님, 종회부의장 각림, 만당 스님, 종회의원 제정 스님 등 종무원 30여 명이 함께 걸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순례”라며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많이 힘든데 곧 있을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순례단처럼 집에서 나와 각자의 순례를 하며 희망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또 숙영지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을 비롯해 밀양지역 표충사, 무봉사, 보문사 등의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환영했다. 또 불교차인연합회 등에서 차보시를 하는 등 지원도 이어졌다.

한편, 순례단은 10월 16일 표충사에 도착해 사명대사 다례재를 진행하며, 17일 최대 난코스인 사자평을 넘어 18일 불보 종찰 통도사에 도착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순례](#) [#자승 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만이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지 되새기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중흥 기대 교차
 '상월결사정신' 청년포교로 전개

이시각추천뉴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세계 불교영화, 지역서도 선보인다
 송광사 불교굿즈 '빨간 목탁' 서울서 만난다
 僧匠 색난 조성 불상·진관사 태극기 '보물' 지정
 “‘승가회합’ 부재 94년 개혁... 종단 세속화 가속”
 학교수업심리치유...코로나 극복 논의 '붓물'
 연등회 기원 '빈넨타품' 영상으로 만난다



국제불교연합, 미얀마 코로나 극복 자비나눔

AD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AD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소유진 다이어트하고 살찌는 똥보균 박멸한 A양 화제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피 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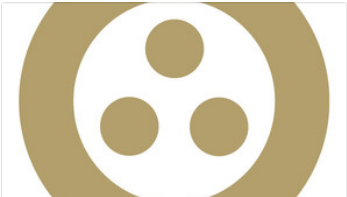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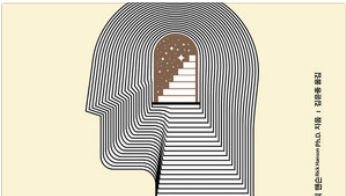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무문 흥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로그인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구독신청

아이디찾기
불편신고

발행 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